

고종연간 집경당(緝敬堂)의 운용과 궁중(宮中) 서화수장(書畵收藏)

황 정 연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

I. 머리말

II. 고종연간 궁중(宮中) 서화수장(書畵收藏)과 수장처(收藏處)

III. 집경당의 건립과 운용

IV. 『집경당포쇄서목(緝敬堂曝曬書目)』의 서지사항과 내용

V. 집경당 소장 서화자료의 특징

VI. 19세기 집경당 소장 자료의 이동과 현전(現傳) 상황

VII. 맺음말

〈附表〉: 19세기 후반 경복궁 집경당(緝敬堂) 소장 서화저록(書畵著錄) 및 서화 목록(書畵目錄)

국문 초록

본 논문은 경북궁 집경당의 운용과 소장품의 내역을 통해 고종연간 궁중 서화수장의 추이를 살펴본 것이다. 그동안 집경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건립시기는 경북궁 중건 공사가 이루어진 1867년 이후이며 주로 내외신 접견처로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집경당과 한 건물로 배치된 함화당의 상량문과 기타 관찬사료의 기록을 통해 집경당이 1890년경에 건립되었으며, 그 운용에 있어서도 국왕의 접견처보다는 주로 고종의 강학(講學) 공간이자 풍부한 서책과 서화를 보관한 궁중 도서관, 서화수장처로서 기능을 하였음을 조명하였다.

서책을 보관한 장서각이 궁궐의 특정 영역과 관계없이 분포했던 반면, 서화작품을 수장한 수장처는 조선후기 이후 연침(燕寢) 영역에 위치하기 시작했다. 고종과 비빈들의 침전 영역에 속한 집경당이 서화수장처로 이용된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특히 고종연간에는 건청궁과 집옥재를 중심으로 국가의 문화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 정책으로 인해 경북궁 연침영역에 궁중 도서관이 밀집해 있었다. 당시에는 헌종에 의해 발전한 19세기 전반의 궁중 서화수장에 힘입어 각 궁궐마다 선왕선후의 초상, 그들의 어필, 조선왕실 서책, 그밖에 국내외 서화가들의 작품이 다량으로 소장되어 있었다. 한편, 고종의 적극적인 외국서적 수입정책과 개항기라는 시대상황과 맞물려 궁중으로 유입된 서화자료의 내역은 크게 달라져 있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1800연대를 전후로 간행된 중국 청대 서화, 화보(畫譜), 총서류 및 일본화보, 서양지도가 상당량 유입된 상황이 파악됨에 따라 조선 고유의 작품을 위주로 했던 전통적인 수장 성격에서 벗어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집경당 소장 서화의 외래적인 성격은 19세기 서화단에 있어 김정희 일파를 중심으로 한 청대 첩학(帖學)·비학파(碑學派) 서풍(書風)의 수용, 그리고 장승업·조석진·안중식 등이 청대 산수·인물 화풍을 적극 수용하여 중국화풍의 대대적인 유행을 가져온 경향과도 상통한 맥락이었다고 하겠다.

주제어 : 19세기, 서화수장(書畫收藏), 고종(高宗), 집옥재(集玉齋), 집경당(緝敬堂), 집경당포쇄서목(緝敬堂曝曬書目)

I. 머리말

고종연간(高宗年間, 1897~1907)은 19세기 전반기를 거치는 동안 비약적으로 증가된 서화작품이 궁중의 여러 곳에 보관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일제강점 초기 분산되거나 궁 밖으로 유출되기 직전 왕실 전적(典籍)이 최후로 보존되었던 시기이다. 당시 궁궐 안에는 귀중 서책과 서화의 손실을 막고 관리하기 위한 용도로 이용된 여러 전각이 있었다. 이러한 궁중(宮中) 서화수장처(書畵收藏處)는 왕실의 서화수장(書畵收藏) 정책과 서화애호의 연장선상에 있었고, 그 안에 수집된 작품들은 국내외 서화계 동향에 대한 수용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미술사학적으로 중요한 연구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경북궁의 집경당(緝敬堂) 역시 고종대의 서화수장 정책에 힘입어 다량의 국내외 서화작품을 수집해 놓은 곳이었다. 당시에는 역대 왕조 동안 수집되었던 많은 서화가 일련의 전쟁과 화재로 인해 이미 상당수 망실된 상태였지만 19세기 궁중에 소장되었던 작품들은 구한말 격동기를 지나 오늘날까지 유존 예가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¹⁾.

지금까지 집경당은 주로 고종의 내외빈 접견실로만 알려져 왔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와 해방 후에는 여타 궁실 전각들이 그렇듯, 본래의 기능에서 벗어나 행정상, 관료상의 용도로 이용되었다. 다행이 2006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해 집경당 및 주변 전각 시설에 대한 발굴 조사가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그동안 미지(未知)에 쌓여있던 건축학적인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마련되었지만²⁾, 여전히 그 기능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사실만 파악되었을 뿐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이곳에 소장되었던 자료를 기록한 『집경당포쇄서목(緝敬堂曝曬書目)』, 『집경당포쇄서목잉흙총록(緝敬堂曝曬書目剩欠總錄)』 등 관련 서목을 토대로 집경당의 기능과 운용에 관해 새롭게 접근하고자 한다. 특히 대한제국기 집경당 소장 전적의 이동상황을 통해 고종의 사재(私齋)였던 집옥재(集玉齋)와 관련성을 파악하고, 소장품을 분석하여 근래 한국미술사학계에서 활발하게 논의 되고 있는 19세기 서화계의 동향과 대외교섭의 측면을 구명(究明)함으로써 19세기 궁중 서화수장사에 있어 집경당의 위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1) 19세기를 포함한 조선시대 宮中 書畵收藏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황정연, 2004, 「19세기 궁중 서화수장의 형성과 전개」 『美術資料』 70·71합집, 국립중앙박물관, pp.131-145; 同著, 2005, 「조선시대 궁중 서화수장과 미술후원」, 이성미 외, 『조선왕실의 미술문화』, 대원사, pp.55-110; 同著, 2007, 「朝鮮時代 書畵收藏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미술사학전공 박사학위 논문 참조.

2)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문화재청 “광화문 및 기타권역 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 4월 이후로 경북궁 興福殿址, 咸和堂 및 緝敬堂 행각지에 대한 조사발굴을 실시했으며, 2006년 12월 15일 발굴자문회의를 현장에서 개최하였다(『문화재신문』, 2005년 12월 14일 자).

II. 고종연간 궁중(宮中) 서화수장(書畫收藏)과 수장처(收藏處)

조선왕실에 의한 다양한 전적(典籍)의 구비는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뒷받침 하고 유교적인 통치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꾸준히 시행되었다. 궁중에 보관되었던 서화작품으로는 선왕·선후(先王·先后)의 초상인 어진(御眞), 그들의 글씨와 그림인 어필·어화(御筆御畵), 역대 명서화가들의 서화첩, 금석탑본(金石搨本), 서화관련 귀중 서책들이 망라되어 있었으며, 일정한 장소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³⁾.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고종연간 역시 의미가 있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순조~헌종연간(1800~1849)을 거치는 동안 왕실의 서화수장 정책에 힘입어 비약적으로 증가된 서화작품들이 여러 곳에 보관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19세기 말 일제 강점초기 직전 분산되거나 궁 밖으로 유출되기 직전의 왕실 전적을 포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궁중에 보관되었던 자료들은 열강의 침입과 개항기라는 특수한 시대상황 속에서 수집된 만큼 왕실 고유 전래의 자료가 위주였던 이전의 경향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고종연간은 조선시대 전적 관리 정책이나 서화수장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난 시기이기도 하다. 당시에는 정부조직이 근대식으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었던 전각이 통합됨에 따라 소장된 자료가 이관되는 일이 빈번하였고 일제강점 후에는 통치체제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조사를 위해 전적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⁴⁾. 아울러 각 전각별로 목록을 작성하여 소장자료를 파악하는 작업이 대대적으로 실시되었으며, 1910년(隆熙 4) 을사늑약(乙巳勒約)이 체결된 시기를 기점으로 일제에 의해 조선왕실 자료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현재 규장각과 장서각에 남아 있는 목록들 중 1900년~1920년 사이에 작성된 것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전각들의 통합 운영은 왕실의 내부적인 이유로 실행되기도 하였다. 1863년 고종이 즉위한 이후로도 섭정을 계속한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이하응(李昰應, 1820~1898)은 왕실의 분산된 기능을 통합하고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관제(官制)를 정비하였다. 종부(宗簿)와 종친(宗親)의 두 부서를 종친부(宗親府)로 통합하고 이전에 봉모당에 소장되었던 왕실자료를 종친부로 이관하였다. 이 때부터 봉모당

3) 조선시대 서화를 보관했던 宮中 書畫收藏處는 소장품의 성격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先王·先后의 초상을 보관했던 眞殿이고 둘째는 선왕선후의 글과 글씨, 그림을 보관한 곳이었던 睿閣, 마지막으로 역대 서화가들의 작품을 보관한 전각이다. 당시 문헌에는 서화를 보관한 곳을 書畫收藏處라고 지칭한 예가 없으나, 이 글에서는 편의상 궁중에서 서화를 보관한 전각들을 宮中 書畫收藏處라고 통칭하고자 한다. 아울러 17세기 이후 私家에서도 많은 서책과 골동서화를 보관하기 위한 수장처의 마련이 활발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선시대 서화수장의 역사에 있어 藏書處(藏書樓)나 서화수장처의 건립은 서화수장 발달과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4) 千惠鳳, 1996, 『藏書閣의 역사』 『藏書閣의 歷史와 資料的 特徵』,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p.8-17.

(奉謨堂) 소속이 규장각에서 종친부로 변경되었다. 당시 세워진 종친부는 경복궁 건춘문(建春門) 밖의 옛터에 세운 총 302칸에 달하는 큰 건물이었으나 현재는 후대에 축소되어 재건된 건물만 남아 있다⁵⁾.

봉모당은 역대 임금들의 유필을 모아놓은 유서 깊은 곳으로서 규장각의 부속 건물이었다. 봉모당을 비롯해 개유와(皆有齋), 열고관(閱古觀) 등 규장각의 주변전각들은 정조연간 이후 왕실 자료를 가장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말기에 들어와 자료의 이동이 가장 극심했으며, 특히 규장각은 자료의 중요성과 정치적인 이유, 일제 강압에 의해 많은 변화를 겪어야 했다. 규장각 자료는 1868년(高宗 5) 7월에 영추문(迎秋門) 안 동북쪽에 지은 두 동의 건물로 이전되었으며, 그 중 한 동은 중국본을, 다른 한 동은 한국본을 보관하였다. 다른 한 동은 동이루(東二樓)로서, 여기에는 보책(寶冊), 『일성록(日省錄)』 등을 보관하였다. 대원군 섭정 당시 규장각 목록이 한 번 더 작성되었는데 현재 『규장각서목(奎章閣書目)』(奎 11706)이라는 표제로 2책이 남아 있다. 이 책은 규장각 상루(上樓), 하루(下樓)로 나누어 중국본과 열성어제, 어필족자와 『일성록』, 관찬사료 등을 두었다. 당시에는 규장각의 기구가 축소되고 봉모당의 자료가 종친부로 이봉되었기 때문에 자료의 전체적인 규모가 감소된 상태였다. 이후 갑오경장(1894)을 거치며 규장각은 궁내부(宮內府) 소속이 되었고 1895년에는 규장원(奎章院)으로 개칭되었으며, 다시 이 곳을 옛 봉모당의 기능인 모훈(謨訓)을 보관하기 위한 곳으로 환원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1907년 수구파 내각 대신들은 고종으로 하여금 황제의 자리를 순종(純宗)에게 양위하게 하고 일본과 합작하여 관제(官制)를 크게 개정하였다. 이들은 구종친부(舊宗親府)인 종정원(宗正院)을 비롯한 봉상시(奉常寺), 종직사(宗籍司), 홍문관(弘文館) 등을 폐지하고 규장각의 기능을 오히려 확장·강화하였다. 또한 일본인 서지학자들에게 자문을 받고 대제실도서관(大帝室圖書館)을 설립하고자 당시 궁내부대신 민병석(閔丙奭)에게 규장각, 홍문관, 집옥재(集玉齋), 춘방(春坊), 북한산행궁(北漢山行宮) 등에 소장된 전적을 함께 모아 정리할 것을 명하였다⁶⁾. 이 때 수집된 전적은 10여 만 건이었으며, 서화만 단독으로 기록한 목록은 없고 1910년 경에 작성된 『보각봉장품목록(譜閣奉藏品目錄)』, 『춘방장서총록(春坊藏書總錄)』, 『춘방장서총목초(春坊藏書總目抄)』 등을 통해 당시 여러 곳에 나누어 보관되었던 작품들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⁷⁾.

이렇듯 고종연간의 궁실 전각의 운영은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변화도 많이 겪었지만, 여전히 전통시대 수장의 전통이 유지되면서 여러 곳에 많은 작품들이 소장되어 있었다. 당시 서화가 보관되었던 궁실전각의 대략적인 분포와 소장품 등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5) 『漢京識略』 卷2 關外閣司「宗親府」. 규장각과 장서각 소장 한국본 古書 중 「宗簿寺印」, 「宗簿寺都提調之印」 등의 藏書印이 찍힌 것은 이 당시 종친부로 이관된 자료이다.

6) 朝鮮總督府 取調局 編, 『奎章閣圖書關係書類綴』(1911년, 규장각 소장본, 奎26764).

7) 譜閣은 일제통감부에 의해 창경궁에 건립된 서양식 건물이다. 현재는 없다. 이곳에 소장되었던 서책과 서화는 『譜閣奉藏品目錄』(장서각 소장)이 남아 있어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있다. 이 서목에 수록된 전적은 璿源錄, 璿源系譜紀略, 譜牒, 列聖八高祖圖 등 왕실관계 족보류가 대다수이다.

표 1. 고종연간 서화를 보관했던 궁실 전각8)

소속궁 (所屬宮)	전각명 (殿閣名)	건립시기 (建立時期)	위 치	기 능	전거(典據) 및 기타
一. 경복궁 (景福宮)	곤령합 (坤寧閣)	고종연간 (高宗年間)	건청궁(乾淸宮) 서쪽	중국도서(中國圖書), 조선서화(朝鮮書畫)	건청궁의 부속건물
	선원전 (璿源殿)	1469 (睿宗元年)	인정전(仁政殿) 의 서쪽	열성조 어진 (列聖祖御眞) 봉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69년 영정(景眞) 33함을 보관 • 1471년 세조(世祖)와 예종어진(睿宗御眞) 봉안 • 1539년 정안왕후(定安王后) 영정 봉안 등 다수(多數)의 기록이 있음.
	용문루 (隆文樓)	1395 (太祖 4)	대조전(大造殿) 동행각 내 (東行閣內)	왕실간행 서책 보관	대조연간(太祖年間)에 용무루(隆武樓)와 함께 설립되었으나 소실(燒失) 후 1868년 경복궁(景福宮) 중건시(重建時)에 재건(再建)됨.
	용무루 (隆武樓)	1395 (太祖 4)	대조전(大造殿) 서행각 내 (西行閣內)	同上	同上
	집옥재 (集玉齋)	1873 (高宗 10)	팔우정(八隅亭) 의 서쪽	열성어진(列聖御眞) · 어필(御筆) · 인보류(印譜類) 보관	고종연간 궁중 도서관 (宮中圖書館)
	집경당 (緝敬堂)	고종연간 (高宗年間)	교태전(交泰殿) 뒤쪽	중국도서(中國圖書) · 화 보(畫譜) · 조선 서화류 (朝鮮書畫類)	후에 외국사신 접대장소로 쓰였음.
	장안당 (長安堂)	同上	곤령합의 서쪽	왕실서책, 어필	同上
	춘안당 (春安堂)	同上	용문당(隆文堂) 의 서쪽	어필, 필첩, 서책 보관	건청궁 뒤에 있었던 용문당의 부속전각. 『내각장서휘 편(內閣藏書彙編)』 소수 (所收).
춘방책고 (春坊冊庫)	고종연간 (高宗年間)	별군직청 (別軍職廳) 동행각의 남쪽	장서(藏書)	춘방(春坊)은 이미 소실된 상태였고 책고만 유존했음.	
二. 창덕궁 (昌德宮)	개유와 (皆有窩)	1776 (正祖元年)	부용정(芙蓉亭) 의 남쪽	중국서적(中國書籍) 보관	
	고조당 (古藻堂)	헌종연간 (憲宗年間) (1847년 경)	낙선재(樂善齋)의 앞면 부속건물	중국 및 조선의 서화작품 보관	허련(許鍊)의 『소치실록(小癡實錄)』 헌종(憲宗)이 완상(玩賞)하던 작품들을 보관하였음.

8) 이 표는 『宮闕志』(고종대), 實錄, 王室書目, 王室印譜 등을 참조해서 작성한 것이다. 인격히 말해 궁중 서화수장처는 궁중 안에 설치된 전각만을 일컫는 것이겠지만, 왕실에 의해 설립되고 관리된 수장처를 일컬어고자 본 표에서는 都城 안팎에 건립된 전각도 일부 포함시켰다. 창덕궁 소속 전각 중 낙선재 일곽은 고종연간에는 창경궁 소속으로 분류되었으나, 오늘날은 창덕궁 영역에 속해 있으므로 함께 포함시켰다. 眞殿은 수가 많아 대표적인 것만 표에 수록했다. 고종은 移御를 반복하면서 어진을 보관한 봉안지도 수시로 변경했으며 경복궁의 修政殿, 寶賢堂, 觀文堂, 泰元殿, 창덕궁의 璿源殿, 書香閣 등이 이용되었다. 조선시대 전전의 건립에 관해서는 추후 정리가 요구된다.

소속궁(所屬宮)	전각명(殿閣名)	건립시기(建立時期)	위 치	기 능	전거(典據) 및 기타
二. 창덕궁(昌德宮)	근옥재(羣玉齋)	고종연간	춘방(春坊)의 서쪽	장서(藏書)	책고(冊庫)가 별도로 있었음.
	규장각(奎章閣)	1776(正祖元年)	대조진(大造殿)의 북쪽	장서(藏書)·어제어필(御製御筆)·어진(御眞)·탐본(搨本) 봉안	
	낙선재(樂善齋)	1847(憲宗 13)	내의원 동쪽	언문소설류·서화(諺文小說類·書畫)	헌종(憲宗)이 애호하던 서화보관
	대축관(大畜觀)	영조연간(英祖年間)	중희당(重熙堂)의 남쪽	중국(中國) 및 조선서적(朝鮮書籍) 보관	현 규장각 소장 『대축관서목(大畜觀書目)』(英祖末~正祖初編)
	동이루(東二樓)	1785(正祖9)	대유재(大酉齋)의 동쪽	장서(藏書)·어필(御筆)·어화(御畫)	
	보각(譜閣)	철종대 이후(哲宗代以後)	미상	왕실족보(王室族譜)·팔고조도(八高祖圖)·인보(印譜)·지도(地圖)·열성어필(列聖御筆)	『보각봉장품목록(譜閣奉藏品目錄)』
	보소당(寶蘇堂)	헌종연간(憲宗年間)(1847년 경)	낙선재(樂善齋)의 퇴칸	서적(書畫)·인보(印譜)	『보소당인존(寶蘇堂印存)』이 현존.
	봉모당(奉謨堂)	1776(正祖元年)	열고관(閣古觀)의 서남(西南)	어제(御製)·어필(御筆)·어화(御畫)·고명(誥命)·유고(遺誥)·보책(寶冊)·인장(印章)·탐본(搨本) 등 보관	본래 열무정(閱武亭)터였음.
	서향각(書香閣)	1776(正祖元年)	주합루(宙合樓)의 서쪽	어진(御眞) 봉안, 주변에 책고(冊庫)가 있었음.	원래 진진(眞殿), 1777년부터 왕비(王妃)가 누에를 친 잠저(蠶紙)로 쓰임.
	승화루(承華樓)	정조연간 건립, 헌종연간 개칭(正祖年間 建立, 憲宗年間 改稱)	낙선재(樂善齋) 북쪽	어필(御筆)·어화(御畫), 중국 및 조선의 서화(書畫)·필첩(筆帖)·인보(印譜) 보관	• 개칭 전 소주합루(小宙合樓)로 명명 • 중국 및 조선 서화가들의 서화작품.
	양지당(養志堂)	정조연간(正祖年間)	선원전(璿源殿) 동쪽	어진(御眞), 명 보장품(明寶藏品), 어필(御筆)·어화(御畫) 보관	구명(舊名)은 손지당(孫志堂)이나 효종(孝宗)때 개칭(改稱).
	연경당(演慶堂)	1828(純祖28)	개금재(開錦齋)의 남쪽	장서(藏書), 익종(翼宗)의 어진(御眞) 봉안	익종(翼宗)이 춘계(春邸)에 있을 때 건립, 옛 진장각(珍藏閣) 터, 연경당 서쪽의 서고(書庫)에 서책 보관
	열고관(閣古觀)	1776(正祖元年)	서충대(瑞蔥臺)의 옛터	장서(藏書)·어제(御製)·어필(御筆)·중국서화(中國書畫)	건륭황실(乾隆皇室)의 내사본 다수(內賜本 多數)
	의두합(倚斗閣)	1827(純祖27)	영화당(映花堂)의 북쪽	중국(中國) 및 조선서적(朝鮮書籍)	익종(翼宗)이 춘궁시(春宮時) 건립.

소속궁(所屬宮)	전각명(殿閣名)	건립시기(建立時期)	위 치	기 능	전거(典據) 및 기타
二. 창덕궁 (昌德宮)	이문원(摛文院)	1781(正祖5)	선원전(璿源殿)의 서쪽	어진(御筆)·어제(御製)·어필(御筆), 선원보첩(璿源譜牒, 서적(書籍))	정조연간 자비대명회원 녹취재 시험에 '이문원장서(摛文院藏書)'가 출제됨.
	자정전(資政殿)	숙종대 이전(肅宗代以前)	숭정전(崇政殿)의 북쪽	태조(太祖)의 어진(御眞) 봉안	숙종(肅宗)의 어제시(御製時) 「침배자정전태조어용(瞻拜資政殿太祖御容)」
	주자소(鑄字所)	미상(未詳)	선인문(宣仁門)의 북쪽	내부(內府)의 지수 수장(刺繡收藏)	
	주합루(由合樓)	1776(正祖元年)	규장각 상층	장서(藏書)·어제어필(御製御筆)·어진(御眞)·답본(搨本)봉안	규장각에 보관된 전적을 열람하던 곳.
	천한각(天翰閣)	1694(肅宗20)	영휘당(永輝堂) 동쪽	열성어필(列聖御筆)과 간판(刊板)	서익각(西翼閣)에 보관하였으나 순조연간(純祖年間)에 동의실(東翼室)로 옮김.
	태녕전(泰寧殿)	1733년 추정	자정전(資政殿)의 서쪽	어진(御眞) 봉안	영조(英祖)의 <중수상량문(重修上樑文)>
	흠문각(欽文閣)	고종연간(高宗年間)	희정당(熙政堂)의 남쪽	서적 수장(書籍收藏)	현재는 없음.
三. 경희궁 (慶熙宮)	흠봉각(欽奉閣)	1769(英祖 45)	대보단(大報壇)의 서쪽, 승문원(承文院) 근처	명나라 황제의 어제(御製)·어필(御筆), 『황조사적(皇朝事蹟)』 봉안	1769년 경봉각(敬奉閣)을 흠봉각(欽奉閣)이라고 개칭.
	경봉각(敬奉閣)	1769(英祖 45)	승문원(承文院) 근처	중국 황제의 어필·어화	1774년 경봉각 곁에 봉안각(奉安閣)을 설치하고 명 칙서(明勅書) 보관
	광명전(光明殿)	영조연간(英祖年間)	용무당(隆武堂)의 북쪽	태조 어진(太祖御眞) 봉안	
四. 덕수궁 (德壽宮)	문헌각(文獻閣)	1700(肅宗 26)	경현당(景賢堂)의 동쪽	조선(朝鮮)의 서적(書籍) 보관	상고(廂庫)의 서적을 옮긴 것. 중국서(中國書) 보관은 양심각(養心閣)
	관문각(觀文閣)	1888(高宗 25)	덕수궁(德壽宮)	왕실서책과 서화보관	『덕수궁인존(德壽宮印存)』에 수록된 「관문각서화기(觀文閣書畫記)」 인영(印影). 이후 화재로 손실
	준명전(濟明殿)	고종연간(高宗年間)	즉조당(卽祚堂) 근처	고종·순종의 어진보관 외국사신 접대 장소	1904년 흠문각의 어진을 준명전으로 이봉(移奉)
五. 기타 (其他)	흠문각(欽文閣)	고종연간(高宗年間)	덕수궁 서쪽 수옥헌(漱玉軒) 근처	왕실서책과 서화 보관 어진 초본(御眞草本), 고종(高宗)·순종 어진(純宗御眞) 봉안	• 『덕수궁인존(德壽宮印存)』에 수록된 「흠문각서화기(欽文閣書畫記)」 인영(印影) • 1904년 4월 14일 어진은 준명전(濟明殿)으로 이봉(移奉) • 1904년 4월 15일 화재로 전각 손실
	경기전(慶基殿)	1410(太宗 10)	전주(全州)의 성남문(城南門)	태조(太祖)의 어진(御眞) 봉안	임진왜란 때 모향산으로 어진 이봉(御眞移奉). 숙종연간 이후 계속 진전으로 사용됨.

소속궁(所屬宮)	전각명(殿閣名)	건립시기(建立時期)	위 치	기 능	전거(典據) 및 기타
五 기타 (其他)	만녕전(萬寧殿)	1713 (肅宗 39)	장녕전(長寧殿) 의 동쪽	어진(御眞) 봉안	•강화유수 조태로(江華留守 趙泰老)가 건립. '별전(別殿)'이라고도 불림. •1776년(英祖52) 장녕전(長寧殿)과 합쳐짐.
	보문각(寶文閣)	고종연간	미상(未詳)	왕실서책·지도(地圖)·서화	•1925년 『보문각서책목록(寶文閣書冊目錄)』 •김영수(金永壽, 1829~1899)의 「보문각상량문(寶文閣上樑文)」
	준원전(濟源殿)	1396 (太祖 29)	함경남도 영흥군	태조(太祖)의 어진(御眞) 봉안	1900년 준원전의 태조영정을 이송(移送)하여 모사함.
	영수각(靈壽閣)	1719 (肅宗 45)	기로소 내 (耆老所 內)	어제어필(御製御筆) 봉안	숙종(肅宗)의 「영수각상량문(靈壽閣上樑文)」
	영희전(永禧殿)	1601년 (光海 2)	한양 남부(南部) 훈도방(薰陶坊)	태조(太祖)·세조(世宗) · 원종어진(元宗御眞) 봉안	•최초에 봉자전(奉慈殿)으로 명명 •1622년 남별전(南別殿)으로 개칭 •1677년 증축 •1690년 영희전(永禧殿)이라 명명
	외규장각(外奎章閣)	1781 (正祖 5)	강화행궁(江華行宮) 의 동쪽	내책고(內冊庫)의 전적(典籍)	강화유수 서호수(江華留守 徐浩修)가 건립.
	장녕구전(長寧舊殿)	1695 (肅宗 21)	장녕전(長寧殿) 동쪽	숙종(肅宗)의 어진(御眞) 봉안	강화유수 김구(江華留守 金構)가 건립.
	장녕전(長寧殿)	1722 (景宗 2)	강화행궁(江華行宮) 의 동쪽	영조(英祖)의 어진(御眞) 봉안	강화유수 홍계적(江華留守 洪啓迪)이 건립.
	진주행궁(全州行宮)	헌종 대 이전 (憲宗 代 以前)	진주부의 동쪽 40리 위봉산(威奉山)	유사시 진진(眞殿)으로 사용	
화녕전(華寧殿)	1801 (純祖元年)	화성행궁(華城行宮) 의 동쪽	세조(世宗)의 어진(御眞) 봉안	일제 시기 때 훼손	

이처럼 고종연간 서화를 보관했던 궁실전각은 집경당 외에도 여러 곳에 있었으며, 창덕궁에 소속된 것은 대부분 정조연간에 건립되어 19세기 전반을 거치면서 증설된 것이었고 경복궁에 소속된 것은 1865년 중건이 진행되면서 조성된 것이 대다수이다. 이 글에서는 수장되었던 서화작품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사례를 들도록 하겠다.

고종연간 경복궁에 건립된 전각 중 장안당(長安堂)과 그 동쪽에 위치한 곤녕합(坤寧閣)에 어필과 서화가 수장되어 있었다. 당시 이곳에 보관되었던 서화자료는 『포쇄서책목록(曝曬書冊目錄)』의 「서화부(書畵部)」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⁹⁾. 이 서목에는 대상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분류

9) 『曝曬書冊目錄』(총 2권,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古262-1). 標題에 각각 第貳, 第參이라고 쓰여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 총 3권이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재는 2권만 남아 있다. 이 서목은 황색 비단으로 장정되었고 표제의 테두리가 朱絲欄으로 되어있는 어람용 서목이다.

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작성되었다. 그림으로는 <소동파상(蘇東坡像)>이 유일하고 《어필첩(御筆帖)》, <순묘신한(純廟宸翰)> 등의 어필 외에 구양순(歐陽詢)·저수량(褚遂良)·조맹부(趙孟頫)·하소기(何紹基)·성친왕(成親王) 등 주로 중국 서예가들의 글씨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수록된 작품 중 <소동파상>, 성친왕의 서첩과 《만향당소첩(晩香堂蘇帖)》, 《향광첩(香光帖)》(董其昌), 《장보(藏寶)》(미상), 《현비탑첩(玄秘塔帖)》(柳公權), 《예천명(禮泉銘)》은 창덕궁 승화루 소장품을 기록한 『승화루서목(承華樓書目)』에 적힌 작품명과 일치하여 혹 승화루 소장품 중 일부가 고종대에 곤령함으로 옮겨진 것이 아닌가 한다. 현재 곤령함은 명성황후(明成皇后, 1831~1904)가 시해당한 불운의 장소로 더 잘 알려져 있지만 이처럼 원래 이곳은 왕실의 귀중한 전적과 서화를 보관한 궁중 도서관으로 쓰였던 곳이다.

19세기 후반기 왕실에서 서화가 수장되었던 또 다른 장소로 세자를 교육시키던 춘방(春坊, 世子侍講院)을 들 수 있다. 이곳에는 어필과 서첩, 그림, 인보류(印譜類) 90여 건 이상이 소장되어 있었다¹⁰⁾. 구체적으로 《열성어필(列聖御筆)》 1책, <어필(御筆)> 1책, 《어필장첩(御筆粧帖)》 1책이 있었고, 중국 법첩으로는 왕희지(王羲之)의 <우군서법(右軍書法)>, 소식(蘇軾)의 <취옹정기(醉翁亭記)>, 조맹부(趙孟頫)의 <송설서법(松雪書法)>, 원(元) 이부광(李溥光)이 쓴 <설암춘종(雪菴春種)> 등이 있었다. 그리고 조선 명필가들의 글씨도 더러 포함되어 있었다. 안평대군의 《비해당서법(匪懈堂書法)》 1책, 한호(韓濩)의 <천자문(千字文)> 15책, 김구(金絿, 1488~1534)의 《우주영허첩(宇宙盈虛帖)》과 <귀거래사(歸去來辭)> 각 1책, 김현성(金玄成, 1542~1621)·이경성(李景奭, 1597~1671)의 《북애시교(北崖詩藁)》 1책, 김의신(金義信, 17세기)의 <설봉서(雪峯書)>, 박태보(朴泰輔, 1654~1686)·김창협(金昌協, 1651~1708)의 글씨를 모은 《정농유묵(定農遺墨)》 등 비교적 조선중기에 활동한 서예가들의 글씨가 많았다. 구한말 춘방 소장품은 집옥재로 흡수된 후 규장각 도서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현존하고 있다. 춘방에 보관되었던 이러한 명인들의 서첩은 왕실에서 감상용과 교육용·습자용(習字用)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춘방에 소장된 전적들 중에는 현재 소장처가 밝혀진 <동궐도(東闕圖)>, <시민당도(時敏堂圖)>, 『보소당인존(寶蘇堂印存)』이 포함되어 있다. 『춘방장서총목록(春坊藏書總目錄)』의 <동궐도> 항목에는 “1匣(16冊)”, “내입(內入)”이라고 부기(附記)되어 있어 원래 춘방에 보관되었다가 어느 시기엔가 대내(大內)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현 고려대박물관 소장의 <동궐도>가 16책의 화책으로 꾸며진 것이므로 구한말 춘방에 소장되었던 <동궐도>는 지금 고려대박물관 본인 것으로 여겨진다¹¹⁾. 그리고 숙종이 동궁이었던 시절 시민당에서 행한 관례를 그린 <시민당도(時敏堂圖)>와 헌종(憲宗)의 어인(御印)을 모은 『보소당인존(寶蘇堂印存)』(1秩씩 14책, 6책인 本)은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

10) 『春坊藏書總目錄』(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K2-4669).

11) <東闕圖>는 거의 동일한 작품이 현재 고려대 박물관과 동아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고려대 박물관 본은 16권의 畫冊으로 구성된 반면, 동아대 박물관 본은 병풍으로 改粧된 상태이다. 동궐도에 관한 최근 저작으로 안휘준 외, 2005, 『동궐도읽기』,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 참조.

각에 소장되어 있다¹²⁾.

명인 필적과 회화식 지도 외에 명신(名臣)들의 초상화도 궁중에 많이 소장되어 있었다. 구체적으로 《명신화상첩(名臣畵像帖)》, 《명신사진첩(名臣寫眞帖)》, <우암[宋時烈]화상첩(尤菴畵像帖)>, <명재[尹拯]화상첩(明齋畵像帖)>, <임충민화상첩(林忠愍畵像帖)>, 《삼상화상첩(三相畵像帖)》, 《진신화상첩(縉紳畵像帖)》, 《각신화상첩(閣臣畵像帖)》 등이 봉모당(奉謨堂)에 소장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¹³⁾. 봉모당의 본래 기능이 열성(列聖)의 어제와 어필, 유훈(遺訓) 자료를 주로 모아놓았던 곳이었음을 상기하면, 19세기 말 봉모당에 소장되었던 명신 초상화는 원소장처를 떠나 이곳으로 이관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례를 뒷받침하듯 고종·순종연간 동안 봉모당의 소장 자료는 정치적인 혼란기 속에서 입출납의 변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

궁중 서화수장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어필자료는 19세기 말부터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1910년 7월까지 봉모당과 보각(譜閣)을 중심으로 『봉모당봉장품목록(奉謨堂奉藏品目錄)』, 『봉모당급봉모당후고봉장서목(奉謨堂及奉謨堂後庫奉藏書目)』, 『봉모당봉장서목(奉謨堂奉藏書目)』 등의 목록에 기록되었으며 고종연간에 건립된 보문각(寶文閣)에도 어필, 중국 명서가들의 서첩, 각종 지도류가 보관되었던 것이 확인된다¹⁴⁾. 구한말에 작성된 이러한 서목들은 당시 궁중에 소장되어 있던 어제어필, 서책, 기타 서화의 정황을 가장 근접하게 알려주는 것이자, 일제강점기를 전후로 흩어진 작품들의 행방을 추적하는 데 단서가 되는 자료이다. 이 중 『봉모당봉장서목』에 수록된 어필의 분포에서도 드러나듯이¹⁵⁾,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봉모당의 수장품 중 영조(英祖)·장조(莊祖; 思悼世子)·정조(正祖)의 필적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산수, 인물, 사군자 등을 그린 임금들의 그림도 많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봉모당 소장의 어필은 계속 유동적이었기 때문에 『봉모당봉장서목』의 내역은 기록당시의 잠정적인 현황이었을 뿐 최종적인 내용이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어필장첩목록(御筆粧帖目錄)』(순종연간)의 내용과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 『어필장첩목록』은 1907~1910년 사이에 이왕직(李王職) 소속 장시사(掌寺司)에서 기록한 것으로 비단으로 장황(粧潢)한 어필원본과 탐본의 목록을 기록한 것이다. 여기에는 『봉모당봉장서목』에 기재되지 않은 어필과 <월중도(越中圖)>, <자규루도(子規樓圖)>, <시민당도(時敏堂

12) <시민당도>에 대해서는 박정혜·이예성·양보경 공저, 2005, 『조선왕실의 행사그림과 옛지도』, 민속원, pp.97-117 참조. 『보소당인존』에 관해서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2002, 『조선왕실의 책』, 圖 57~58 참조.

13) 掌寺司 編, 『御筆粧帖目錄』(장서각 소장본, K2-4965). 작성연대에 대해서는 중간에 대원군을 大院王(1907년 稱)으로 칭한 부분이 있고 고종어필 다음에 “수.1.”이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순종연간인 1907~1910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각 화상첩에 기재된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名臣畵像帖》: 崔致遠·姜民瞻·安裕·崔惟善·李齊賢·鄭夢周·河演·金時習·周世鵬·朴淳·李元翼·金應河
- 《名臣寫眞帖》: 崔致遠·李齊賢·鄭夢周·金時習·安珣·朴淳·林慶業·宋時烈·尹拯·許穆
- 《三相畵像帖》: 宋時烈·尹拯·許穆

14) 『寶文閣書冊目錄』(구장각 소장본, 奎11617) 참조.

15) 『奉謨堂奉藏書目』(1910년 필사, 장서각 소장본, K2-4647).

圖)》(1670), 《집상전구기도(集慶殿舊基圖)》처럼 춘방(春坊)에서 옮겨온 그림들이 기재되어 있다¹⁶⁾. 그리고 간간히 어필 제목 위에 '새로 구입함(新購)' 라는 두주(頭註)가 있는 것으로 보아 왕실에서 다시 구입한 어필이 수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동일한 전각에 대해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두 서목의 내용이 서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구한말 전적의 이동이 수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이러한 서목에 기록된 어필들은 봉모당이 1918년 일제에 의해 철거되기 전 보존되었던 작품이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철거 후 이 작품들은 다른 전각으로 이동되었거나 궁 밖으로 유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20세기 초 봉모당에 수장되었던 어제어필 탐본류는 서목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양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많은 작품들을 통해 확인되는 사항이다. 왕실 탁본류가 규장각이 아닌 장서각에 밀집된 연유는 1900년대 초 이왕직 도서관에 의해 창경궁 장서각으로 일괄 이전되었기 때문이다. 탁비(拓碑)와 장황한 시기는 숙종 대부터 고종연간에 이르는 다양한 시대적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비신(碑身)의 크기와 탁인(拓印) 상태에서 느껴지는 장중함과 정교한 솜씨는 사가(私家)의 탁본에서는 볼 수 없는 왕실의 위엄을 보여준다.



사진 1. 연문소설 『남계 연담(南溪演談)』에 찍힌 장서인(藏書印): 「관문각 서화기(觀文閣書畫記)」 19세기 말 고종연간

각종 지도류와 궁중기록화, 탁본을 보관했던 수장처 외에 덕수궁의 흠문각(欽文閣)과 관문각(觀文閣) 역시 고종연간 일반 서화를 보관했던 전각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고종이 사용했던 인장의 인영(印影)을 모은 『덕수궁인존(德壽宮印存)』에 「흠문각서화기(欽文閣書畫記)」, 「관문각서화기(觀文閣書畫記)」처럼 두 전각이 서화수장처였음을 암시하는 인장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¹⁷⁾. 관문각은 1888년 1월에 짓기 시작하여 4월에 상량문이 제술(製述)된 곳이고, 흠문각은 경운궁 서쪽문인 간성문(干成門) 밖 수옥헌(漱玉軒) 북쪽에 위치했던 건물로 1904년의 화재로 소실되어 이듬해 중건되었다¹⁸⁾. 이 인장들이 고종의 인보(印譜)에 포함된 것을 보면, 고종이 직접 흠문각이나 관문각에 소장된 서화를 감상하고 찍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두 전각의 수장목록이 남아 있지 않기에 여기에 소장되었던 작품은 알 수가 없다¹⁹⁾. 다만 현재까지는 서화

16) 이 그림들은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보관되어 있다.

1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편, 앞의 책(2002), 圖 56.

18) 『高宗實錄』 25年(1888) 4月 乙巳(24日)條: 41年(1905) 7月 2日(양력). 흠문각은 高宗과 純宗의 御眞이 瀋明殿으로 移奉되기 전 보관된 곳이기도 하다. 『高宗御眞圖寫都監儀軌』(1902년, 규장각 소장본)은 고종과 황태자 순종의 어진을 제작하여 西京과 흠문각에 각각 봉안한 절차를 기록한 것인데, 말미에 「御眞容眞奉安欽文閣儀」가 첨부되어 있어 자세한 의식절차를 알 수 있다.

19) 『德壽宮印存』에는 「怡園書畫」, 「秦篆漢書樓」 등 서화와 관련된 인장이 수록되어 있다. 19세기에 들어와 『寶蘇堂印存』을 비롯한 왕실 印譜가 간행된 배경에는 유사한 시기에 私人 印譜가 다량으로 출간된 경향과 연관이 깊다. 현재 『田黃堂印譜』, 『惺堂印譜』, 『冽上名家印譜』, 『梨花堂印譜』 등 19세기 이후에 편찬된 私人 印譜가 다수 남아 있다. 각 印譜의 도판은 궁중유물전시관 편, 1995, 『朝鮮御寶』 참조.

작품이 아닌 인문(諺文) 소설에 찍힌 사례만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인문(印文)이 서화기(書畵記)라고 해서 반드시 서화작품에만 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사진 1).

Ⅲ. 집경당의 건립과 운용

현재 경복궁 향원정(香遠亭) 정면에 위치하고 있는 집경당은 고종과 비빈들의 침전이었던 흥복전(興福殿)에 예속된 전각이며 서쪽의 함화당(咸和堂)과 두 칸으로 된 복도로 연결되어 수평을 이룬 팔작지붕 건물이다(사진 2)²⁰⁾.



사진 2. 경복궁 집경당(緝敬堂)의 수리 전 모습 (2005년 11월 필자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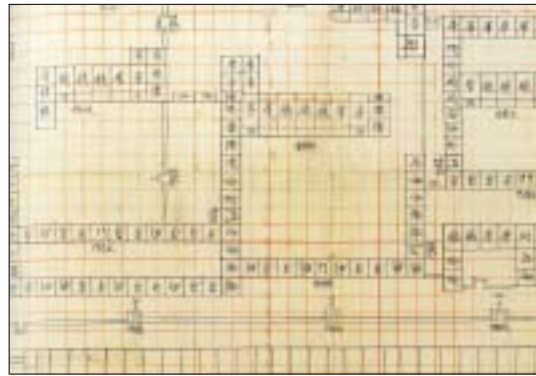


사진 3. <북궐도형>에 그려진 집경당·함화당 행각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北闕圖形』, p. 41)

집경당의 건립연대에 관해서는 문헌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지금까지 1867년 이후 경복궁의 제전각이 복구될 때 조영되었을 것으로 추측되었고 최근 조사보고서에서는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1867~1873년 사이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하였다²¹⁾. 그러나 고종연간 문신이었던 김영수(金永壽, 1829~1899)가 쓴 함화당상량문(咸和堂上樑文)이 남아 있어 대략적인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고 본다. 김영수는 1870년 정시문과에 급제한 후 호조판서, 공조판서, 한성부판윤 등 고위관직을 역임했고 문장을 잘 해 고종의 총애를 받았던 인물인데, 그의 문집에 의하면 함화당의 상량문을 제출한 시기는 1890년 10월이었음을 알 수 있다²²⁾. 김영수의 상량문은 중수기록보다는

20) 함화당 역시 집경당과 거의 동일한 양식으로 지어졌으므로 두 건물은 유사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두 건물과 유사한 건축 구조를 덕수궁의 浚明堂과 卽昨堂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다만 이 두 전각에는 집경·함화당에 딸려 있는 樓가 없다.

21) 문화재청, 2006, 『궁궐현판의 이해』, p. 85.

22) 金永壽, 『荷亭集』卷4, 上樑文「咸和堂」樑文 庚寅十月(민족문화추진회, 2004, 『韓國文集叢刊』322, p. 61). 김영수는 함화당 외 列聖의 寶冊을 보관했던 장소인 寶文閣의 상량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전각의 위치와 조영 및 편액게시 사실, 조정(朝廷)의 축원을 기록한 것이 주 내용인 것으로 보아 건립 당시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함화당의 건립 시기는 바로 옆에 세워진 집경당 건립연대와도 관련이 있다고 본다. 즉 고종연간에 편찬된 등록(騰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일성록』 등 관찬사료에도 집경당에 관해서는 1890년 12월 이후 기사부터 확인되고 있으며, 1891년 경에 편찬된 『궁궐지』에도 집경·함화당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²³⁾. 물론 그 이전에 건립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이상의 기록들을 토대로 집경당의 건립연대 역시 함화당의 건립연대와 동일한 1890년경에 지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많은 궁실 전각들이 훼손되었거나 개조되었음에도 집경당 건물 자체는 상대적으로 덜 파괴된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이는 집경당과 함화당이 일제강점기 동안 총독부감찰국, 총독부박물관 사무국으로 사용되어 다행히 보존되었기 때문이다.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에 수록된 1930년대 사진과 비교해 보아도 계단과 퇴칸에 부분적인 변형은 있지만 전체적인 모습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²⁴⁾.

그럼에도 오늘날 집경당 주변 행각의 원래 모습은 문헌자료와 비교하면 많은 변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0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북궐도형(北闕圖形)> 등에 의하면 본래 두 건물을 연결한 복도를 경계로 담장이 있었고 그 중간에 계명문(啓明門)과 영춘문(迎春門)이라는 아치형 문이 있었으나, 지금은 담장이 허물어져 건물 전체가 노출된 상태이다²⁵⁾. 『궁궐지』에 의하면 집경당은 28칸 반, 2칸5량의 규모로, 동서남행각마다 각각 봉양문(鳳陽門), 백상문(百祥門), 향명문(嚮明門)이 연계되었으며, 북행각은 함화당과 경계를 이룬 담장이 있었다²⁶⁾. 이는 <사진 3>으로 제시된 <북궐도형>에 그려진 집경당·함화당 행각 평면도와 거의 일치하지만 도형에서는 집경당의 전체 칸수가 26.5칸으로 표시되어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집경당이 속했던 침전 영역 역시 현재와 달리 여러 전각과 담장이 밀집해서 들어선 곳이었다. 흥복전의 북쪽에는 광원당(廣元堂)이, 광원당 북쪽에는 집경당과 함화당이, 그 옆으로는 영훈당(永薰堂)이 이웃해 있었지만 집경당과 함화당을 제외하고 모두 총독부에 의해 철거되어 일본식 연못인 곡수지(曲水池)가 되었기 때문에 유지(遺址)만 남게 되었고 현재는 복원사업이 진행 중이다.

23) 『宮闕志』(장서각 소장본, K2-4360). 이 『궁궐지』는 1891년 창덕궁에서 移建된 集玉齋가 경복궁에 기록되었고, 역시 同年 경운궁으로 이전된 重瀼堂이 이전되기 전 장소인 창덕궁 승화루 주변의 전각으로 기록된 것으로 미루어 1891년 경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된다.

24) 朝鮮總督府 編, 1932, 『朝鮮古蹟圖譜(宮室篇)』 10冊, 圖4691 참조.

25) <북궐도형>에 대해서는 이강근, 2006, 「북궐도형(北闕圖形) 해제」,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北闕圖形』, pp.114-117 참조. <북궐도형>은 동일본이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울대 규장각(奎貴 9978)에 소장되어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본은 1981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 문화재관리국 자료를 이관할 때 미인수 자료였기 때문에 현재 문화재 연구소에 남게 된 것이고, 규장각 소장본은 <北闕後苑圖形(奎9979)>과 연결되는 경복궁 평면도이다.

26) “緝敬堂二十八間半二間五椽, 東行閣六間有‘暢榭門’, 西行閣五間有‘百祥門’, 南行閣十間有‘嚮明門’, 北行閣九間半及半半間北間牆一角門 應福門, 緝敬堂西邊有咸和堂…(후략).” 『宮闕志』 景福宮「緝敬堂」.

고종은 경복궁 후원 지역을 자신의 집무처로 이용하면서 거리상 가까운 집경당과 함화당을 유사한 용도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집경당의 용도는 『일성록』의 1890~93년의 기사를 토대로 파악되는데, 신료들과 함께 『동사강목(東史綱目)』을 토론한 강학(講學)의 장소로 가장 많이 이용되었다²⁷⁾. 또한 이 곳에서 고종은 과거에 합격한 유생(儒生)들을 불러다 『규장전운(奎章全韻)』을 하사하며 노고를 치하하기도 하였다. 반면 내외신 접견처로 이용된 사례는 각국 공사를 친견한 1893년 2월 8일자 기록 외에는 발견되지 않아 흔히 알려진 것처럼 이곳을 내외신료 접견처라고 단정할만한 근거는 희박하다고 본다²⁸⁾. 오히려 여러 기록으로 보았을 때 고종은 집경당보다는 함화당에서 각 신료들을 소대하여 국정운영에 관한 유지(有旨)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국왕의 본격적인 집무처로 쓰인 곳은 함화당이라고 할 수 있다²⁹⁾.

고종이 집경당에서 강학을 했다든지, 과거에 합격한 유생들을 치하하며 왕실서책을 내려준 사실은 이곳이 많은 도서를 수장했던 궁중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했음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증거이다. 이러한 점은 뒤에서 살펴 볼 『집경당포쇄서목』을 통해 집경당에 방대한 도서와 서화자료가 수장되어 있었다는 사실과도 직결된다.

집경당은 왕비의 생활공간이었던 연침과 가까이 있어 이곳에 소장되었던 전적을 ‘내부비장(內府秘藏)’이라고 불렀다고 한다³⁰⁾. 서책이나 서화를 여러 전각에 함께 보관한 것이 조선왕실의 오랜 전통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화를 보관한 전각들은 서화수장처이자 넓게는 궁중 도서관의 기능을 갖춘 곳이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창덕궁 승화루(承華樓)처럼 19세기에 이르러 서책보다 서화를 비중 있게 수집해 놓은 전각이 건립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주목을 요하며, 집경당 역시 그러한 분위기의 연장선상에서 서화수장처로서 활용된 측면이 컸다고 할 수 있다³¹⁾.

그렇다면 집경당에 많은 서책과 서화가 보관되었던 직접적인 배경은 무엇일까? 이에 관해서는 집경당 주변이 고종연간 궁중 도서관, 서화수장처가 밀집된 곳이었다는 점에서 이유를 찾아 볼 수 있다. 앞 장에서 언급한 장안당, 곤녕합, 춘안당, 집옥재 등은 모두 집경당과 거리상 가까운 전각들로, 대부분 서양서와 중국, 일본, 조선 전래의 서책과 서화를 보관했던 곳이다. 서화수장처가 왕의

27) 『일성록』에는 고종이 신료들을 집경당에 召對하여 『東史綱目』을 강독한 기사가 자주 등장하는 반면 이곳에서 각국공사를 접견한 기사는 『口省錄』 冊387, 癸巳(1893) 二月 初八日(辛酉)條 한 건만 등장한다. 『고종실록』에는 고종이 집경당에서 내외신료를 접견했다는 기사는 나오지 않는다.

28) 『口省錄』 冊388, 癸巳(1893) 二月 初八日(庚寅)條.

29) 『口省錄』 冊383, 壬辰(1892) 十月 二十九日(癸未)條; 『口省錄』 冊384, 壬辰(1892) 十一月 三日(丁亥)條 등. 아울러 1892년 義和君 李瑋의 冠禮를 함화당에서 거행했고(『義和君冠禮贈錄』) 1895년 명성황후 國葬을 치른 후 고종이 함화당으로 還御하여 제례준비를 당부한 것으로 보아(『明成皇后國葬都監儀軌』), 이 곳은 고종연간 왕실의 주요 행사장이자 집무처였음을 알 수 있다.

30) 홍대영 편, 2001, 『한국의 건축문화재(서울편)』, 기문당, pp.88-89.

31) 승화루의 수장품에 대해서는 남권희, 1987, 「承華樓書目考」 『社會科學研究』 3號 慶北大 社會科學研究所, pp.63-86; 황정연, 앞의 논문(2004), pp.131-145; 유흥준, 2006, 「헌종의 문예취미와 서화컬렉션」 『조선왕실의 印章』, 국립고궁박물관, pp.202-219 참조.

사적인 생활공간이었던 연침(燕寢) 영역이나 관료들이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한 후원에 위치하게 된 것은 18세기 이후 나타난 현상이지만 누구보다도 고종은 연침 영역에 집무처와 개인도서관을 두었기 때문에 집경당을 포함해 주변 전각들은 이러한 용도로 쓰인 사례가 많았던 것이다. 이후 집경당은 장서와 서화가 1891년 집옥재가 건립되면서 대거 이동함에 따라 고종의 간헐적인 집무처로 이용되었고 일제 강점기에는 총독부 감찰국으로, 해방 후에는 현 국사편찬위원회의 전신(前身)인 국사관(國史館) 건물로 사용되는 등 한국근현대사의 격동을 같이하며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집경당에 소장되었던 전적의 내용과 집옥재로의 이동상황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IV. 『집경당포쇄서목(緝敬堂曝曬書目)』의 서지사항과 내용

집경당에 소장되었던 서화작품을 기록한 서목은 현재까지 두 건이 확인되었다. 하나는 규장각 소장 『집경당포쇄서목(緝敬堂曝曬書目)』(이하 『포쇄서목』)이며, 다른 하나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집경당포쇄서목잉흙총록(緝敬堂曝曬書目剩欠總錄)』(이하 『잉흙총록』)이다. 전자는 서명에서 알 수



사진 4. 『집경당포쇄서목(緝敬堂曝曬書目)』 표지
1890~1891년경 작성, 1책 98장, 22.9×21.1cm, 서울대 규장각 소장(필자 촬영)

있듯이, 집경당에 소장된 전적을 포쇄할 때 내용을 점검하여 작성한 것이며, 후자는 목록작성시 발견하지 못한 유루분(遺漏分)이나 수가 모자란 자료를 별도로 정리한 것이다. 이 중 서화 관련 내용은 후자보다는 전자가 더 풍부하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포쇄서목』을 중심으로 서지사항과 수집시기, 내용 등을 살펴보고 『잉흙총록』은 필요시 함께 언급하도록 하겠다.

『포쇄서목』은 상하 30cm가 넘지 않는 정사각형 크기이며 필사본이다. 두꺼운 장지(壯紙)로 된 표지 위에는 사격 '만자(卍字)' 문양이 찍혀있다(사진 4). 만자 무늬의 책표지 문양은 조선 후기 고서의 책표지 문양[菱花紋]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20세기 초까지 유행한 문양으로, 19세기 왕실 서책에서도 바탕무늬로 종종 쓰인 사례가 발견된다.

32) 남권희, 2005, 「朝鮮時代 古書의 表紙紋樣」 『우리 옛 책의 아름다움』, 청주시문화사업진흥재단, pp.372-391; 조계영, 2006, 「朝鮮王室 奉安 書冊의 粧幀과 保存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헌관리학 전공 박사학위논문 참조.

첫 장에 「조선총독부도서지인(朝鮮總督府圖書之印)」이라는 인장이 희미하게 찍혀 있어 총독부 취조국으로부터 환수된 자료임을 알 수 있다.

본 서목은 집경당이 건립된 1890년경부터 소장자료가 집옥재로 이동된 1891년경 사이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종연간에는 1897년 대한제국선포 이후 표의(表衣)를 황색비단으로 장정한 어람용(御覽用) 서목이 만들어졌는데, 『포쇄서목』의 경우 어람용이 제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작성시기가 대한제국 선포 이전이라는 점을 증명해준다. 체제에 있어서는 총 12부(部)로 구성되었고 해당 부가 시작되는 부분마다 홍색 부첨(附簽)으로 표시해 놓았다. 이렇듯 서목에 색인용 부첨지를 붙이기 시작한 시기는 고종대부터이기 때문에 이전에 작성된 서목에서는 잘 볼 수 없는 특징이다. 첫 장에는 각 부별로 수량과 부족분을 기록한 총 목차가 있고 빠진 수량에 대해서는 「경(敬)」이라는 원형 도장을 찍어 확인해 두었다. 『인흥총록』의 필체와 구성 역시 『포쇄서목』과 같다. 집경당에 수장되었던 도서의 총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두 서목에 수록된 각 부의 종류와 수량을 종합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2. 집경당 소장 전적(典籍)의 규모

집경당포쇄서목 (集敬堂曝曬書目)			집경당포쇄서목인흥총록 (集敬堂曝曬書目剩欠總錄(剩佚))			총계
순번	部	수량	순번	部	수량	
1	經部	135秩 1955本	1	經部	11秩 85本	146秩 2040本
2	史部	144秩 4278本	2	史部	11秩 289本	155秩 4567本
3	子部	10秩 250本	3	子部	해당사항 없음	10秩 250本
4	集部	331秩 8339本	4	集部	29秩 1182本	360秩 9521本
5	書畵部	267秩 941本	5	書畵部	35秩 132本	302秩 1073本
6	韻部	126秩 1239本	6	韻部	7秩 44本	133秩 1283本
7	醫部	54秩 230本	7	醫部	6秩 9本	60秩 239本
8	算部	70秩 473本	8	算部	3秩 7本	73秩 480本
9	新奇部	275秩 1450本	9	新奇部	37秩 133本	312秩 1583本
10	雜著部	219秩 1953本	10	雜著部	18秩 124本	237秩 2077本
11	試帖部	270秩 1542本	11	試帖部	16秩 154本	286秩 1696本
12	小說部	47秩 394本	12	小說部	해당사항 없음	47秩 394本

이상의 통계를 통해 집경당에는 총 2,121질 25,203본에 해당하는 다량의 서책 및 서화작품이 보관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중국의 역대 명인들의 문집을 모아놓은 집부에 속한 서책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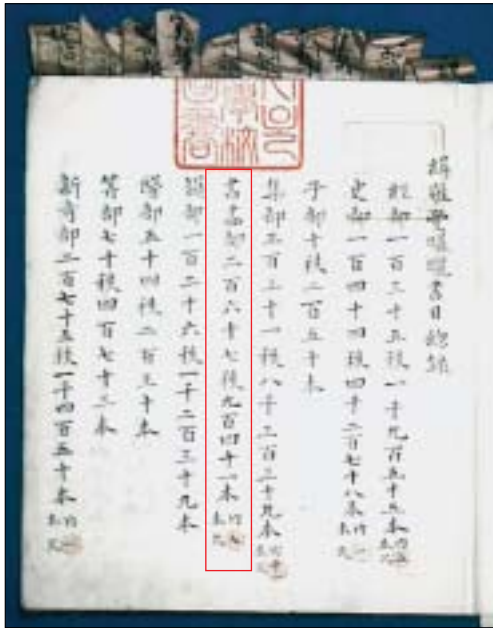


사진 5. 『집경당포쇄서목(集敬堂曝曬書目)』
내지 첫 장의 목차와 「書畫部」 부분
* 네모칸 처리는 필자에 의함.

(雜著部), 시첩부(詩帖部), 소설부(小說部)처럼 특정한 성격을 담은 자료를 별도로 분류했으며, 대수학·기하학 등 수학 관계저서를 모은 '산부(算部)'와 각종 지리와 군사, 화학, 천문 관련 서양서적을 모은 '신기부(新奇部)'가 포함된 사실은 당시 왕실이 집경당 전적의 수집에 있어 신문물의 수용을 적극 고려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서양관련 서적들은 대부분 중국을 통해 들어온 한역본(漢譯本)이었으며, <서양구도(西洋球圖)>나 <만국여도(萬國輿圖)>처럼 서양지도나 세계지도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1870~80년대 작성된 『내각장서휘편(內閣藏書彙編)』이나 『내하책자목록(內下冊子目錄)』에도 다수의 서양서가 수록되어 있어 19세기 후반 궁중에 소장되었던 서양관련 자료는 집경당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었다. 국외로부터의 신자료 수집은 대한제국의 기틀을 마련 하긴 위한 방도로 국외의 신서적을 구입하는데 심열을 기울인 고종의 방침과도 연관이 있다고 해석되며, 다음 장에서 살펴 볼 「서화부」의 수록 전적이 '옛것' 보다는 '당대' 자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집경당 소장 전적 중 「서화부」에 수록된 자료는 23%에 해당하는 양으로, 경부와 사부에 집중된 동시기 다른 수장처와 비교하여 결코 적은 숫자라고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주목되는 것은 「서화부」가 하나의 부(部)로 독립적으로 설정되었다는 점이다(사진 5). 왕실서목에서는 경사자집(經史子集)의 사부(四部) 분류체계에 입각하여 서화 작품을 자부(子部)의 하위분류에 수록하는 것이 전통적인 기재방식이었으나, 『포쇄서목』에서는 서화를 서적의 범주가 아닌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한 것이다³³⁾. 이러한 사실은 황실의 서화수장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고양되었음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포쇄서목』의 목차를 보면 당시 다양한 사부 분류체계가 시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화부」 외에도 운부(韻部), 산부(算部), 신기부(新奇部), 잡저부

33) 고종연간 사부분류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기록된 「서화부」는 1910년 일제가 帝室圖書館의 운영규칙을 정하면서 다시 자부의 藝術類에 포함되었고, 이때 목록방식도 함께 규정화되어 더 이상 기록방식의 발전을 가져올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宮內府大臣 官方調査料 編, 1910, 『宮內府例規』, 宮內府 참조.

V. 집경당 소장 서화자료의 특징

이미 앞 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집경당에 소장되었던 서화는 총 1,073점에 달하며 19세기 전각 중 승화루 다음으로 이렇듯 많은 서화가 보관되었던 전각은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이곳에 소장되었던 서화관련 저록 및 작품을 표로 정리하면 본 논문의 말미에 첨부된 부록과 같다. 우리나라 작품으로는 고종의 제5남인 의친왕 이강(義親王 李綱, 1877~1955)의 글씨가 유일하게 포함되었을 뿐 상당수가 중국본이다. 목록에 기재된 자료를 보면 전반적으로 회화작품은 많지 않고 서화저록과 중국 서예관련 자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 목록에서는 보이지 않던 명·청대에 출간된 각종 척독류(尺牘類)와 『지부족재총서(知不足齋叢書)』, 『오아당총서(奧雅堂叢書)』, 『술고당총서(述古堂叢書)』(1879년 간본), 『이원총화(履園叢書)』 등 중국 총서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총서들의 간행연대는 대부분 19세기에 집중되어 있고 그 중에는 집경당의 건립된 시기와 멀지 않은 1880연대에 중국에서 발간된 것도 포함되어 있다. 아래에서 언급할 여러 서화관련 저록이나 화보 역시 상당수가 청판본(淸版本)이다. 이는 곧 집경당 자료들이 고종연간에 새롭게 구입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여기에서는 소장 자료를 일일이 살펴보지 않고 집경당 소장품의 성격을 알려주는 특징을 다음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청대 고증학의 열풍에 영향을 받은 듯 금석문·청동기의 명문을 모은 집성류가 다수 수집되었다는 점이다. 이곳에 수장되었던 옹방강(翁方綱)의 『양한금석기(兩漢金石記)』, 풍운봉(馮雲鵬)의 『금석색(金石索)』, 왕창(王昶)의 『금석취편(金石萃編)』, 풍등부(馮登府)의 『금석종례(金石宗例)』, 완원(阮元)이 1882년에 간행한 『설씨종정관지(薛氏鐘鼎款識)(宋 薛尚功 編)』 등 청대 학인들이 저술한 금석록(金石錄)은 궁중 뿐 아니라 금석학에 조예가 깊었던 김정희(金正喜, 1786~1856)를 비롯해 조선 문사들 역시 많이 참조했던 저록이다.

다음으로 집경당에 수장되었던 그림은 중국이나 일본에서 전래된 작자미상의 고사도나 화조화가 대중을 이룬 반면, 글씨에 관한 자료는 훨씬 풍부했음을 볼 수 있다. 왕희지(王羲之), 조맹부(趙孟頫), 동기창(董其昌), 문징명(文徵明) 등 앞 시대의 정통 서예가들의 작품들도 수장되었지만 조지겸(趙之謙)·오대징(吳大澂)·하소기(何紹基)·등석여(鄧石如) 등 청대 비학과(碑學派)를 대표한 서예가들이 전서나 예서로 쓴 작품들이 많이 발견된다. 이들 작가들의 글씨는 필첩이나 각본(刻本)으로 된 것도 있었지만 건물의 기둥에 걸어 놓는 주련서(柱聯書)가 많이 수록되었다. 청대 서예가들의 주련서가 왕실서목에 기재되기 시작한 것은 『승화루서목』을 비롯한 19세기 전반 궁중 소장품을 기록한 서목에서부터 확인된다. 현재 집경당과 함화당, 낙선재 주변의 전각들에서 중국 명인들의



사진 6. 창덕궁 연경당(演慶堂)의 대청에 걸린 청 성친왕(淸 成親王)의 글씨 모각본 주련(柱聯)과 그 세부 (2006년 필자촬영)

글씨를 판각하여 주련으로 걸어 놓은 예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전통이 19세기 궁중 소장품에서 기인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금석문을 응용한 비학에 기초하여 작품 활동을 한 서예가들과 더불어 역대 명인의 필첩을 토대로 글씨를 수양해야 한다는 첩학(帖學)을 주장한 인물들의 작품들도 소장되었다. 특히 성친왕 영성(成親王 永理, 1752~1823)의 작품이 19세기 궁중으로 상당수 유입된 것으로 드러난다³⁴⁾.

그는 건륭황제의 열한 번째 아들인 종실출신으로서 유옹(劉庸, 1719~1804), 왕문치(王文治), 양동서(梁同書)와 함께 청대 첩학파(帖學派)를 대변한 인물이다. 동시기 사가(私家)에서는 성친왕의 글씨를 모았다는 기록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반해 유독 당시 왕실서목에서는 그의 글씨가 여러 점 저록되어 있어 궁중에 많이 소장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효명세자가 머물렀던 창덕궁 연경당의 기둥에 성친왕의 글씨를 모각하여 걸어 놓은 것을 보아도 궁중에서 그의 글씨를 수집하여 감상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사진 6>. 집경당에는 성친왕의 문집인 『이진재집(貽晉齋集)』(1879년 간본)과 그의 서첩인 《성친왕서첩(成親王書帖)》(1812년 跋), 《이진재 건상첩(貽晉齋巾箱帖)》(1880년 각본), 《이진재법서(貽晉齋法書)》(간년미상)가 소장되어 있었는데 서첩은 모두 탁본이나 모각본이다.

이상의 금석록과 중국의 비학(碑學)과 첩학(帖學) 연구 경향을 대변한 글씨 등은 청대 고증학에 크게 영향을 받았던 19세기 조선 학계에서 열람한 참고자료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청대 서풍 수용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단서가 되리라 생각한다.

끝으로 조선말기 명·청대 및 일본 화보(畫譜)의 유입양상을 알려주는 자료들이 풍부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집경당 소장품 중 중국 서예자료 외에 다양한 중국의 화보가 수집된 것도 '시대성'이 반영된 특징이다. 여기에는 17세기 이후 조선화단에서 널리 유통되었던 『고씨화보(顧氏畫譜)』와 『개자원화전(芥子園畫傳)』, 『당시화보(唐詩畫譜)』와 같은 중국의 전통적인 화보를 포함하여 『해상

34) 19세기 문인들 역시 성친왕의 서첩을 접했다. 특히 金正喜는 曹匡振으로부터 성친왕의 필첩을 얻어 발문을 썼고 서법에 대한 평도 남겼. 그의 서법에 대해 나뉘 이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金正喜, 『阮堂全集』 卷6 題跋 『題貽齋書帖』 참조.



사진 7. 양기훈(楊基薰), <군안도(群雁圖)>, 1905년, 10폭 병풍 중 1~5폭, 견본담채, 전체160×391cm,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춘천박물관 2004, 『태평성대를 꿈꾸며』, 圖 9).



사진 8. 『점석재총화(點石齋叢畵)』 권7

명가화고(海上名家畵稿), 『시중화(詩中畵)』, 『육수당화전(毓秀堂畵傳)』 등 19세기 조선 화단(畵壇)에 알려진 청대 화보, 그리고 『화보채신(畵譜采新)』, 『창회화보(暢懷畵譜)』, 『백묘화보(白描畵譜)』, 『운계산관화보(雲溪山館畵譜)』, 『야매화보(冶梅畵譜)』 등 다양한 화보가 수장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화보들은 대부분 출판업이 성행했던 중국 강남지역에서 판각된 것들로, 조선에서는 이미 18세기 정조연간부터 강남에서 간행된 서적을 꾸준히 수입하고 있었다. 특히 상해에서 출간된 『시중화』, 『해상명가화고』, 『점석재총화(點石齋叢畵)』, 『육수당화전』은 장승업(張承業, 1843~1897), 안중식(安中植, 1861~1919), 지운영(池雲英, 1852~1935), 조석진(趙錫晉, 1853~1920) 등 근대 화가들이 상해화단의 산수·인물화풍을 수용하는데 있어 중요한 참고서였음이 논의된 바 있다³⁵⁾.

한편, 장승업, 양기훈(楊基薰, 1843~?), 강필주(姜弼周, ?~약 1930), 안중식 등을 중심으로 조선말기 화단에 <노안도(蘆雁圖)>가 유행하게 된 배경에 있어서도 상해에서 출간된 화보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한 가지 예로 『점석재총화』에 수록된 기러기 형상과 양기훈이 1905년 고종에게 그려 바친 <군안도>가 유사한 소재와 양식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사진 7, 8). 두 작품을 비교하면 기러기들이 일렬로 무리지어 날아가는 모습이나 착지하는 자세, 깃털과 형상에 있어 유사성이 보인다. 양기훈이 고종연간 어용화사로 활동했고 동시기 궁중에 『점석재총화』를 비롯한 다양한 중국화보가 수장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가 이러한 화보를 접했을 가능성이 있다.

35) 자세한 내용은 김현권, 1996, 『清末 上海地域 畵風이 朝鮮末近代繪畵에 미친 影響』, 동국대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최경현, 2006, 『19世紀後半 20世紀初 上海地域 畵壇과 韓國 畵壇과의 교류 연구』, 홍익대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참조.

집경당에는 상해에서 출간된 중국화보 외에 일본에서 간행된 화보도 소장되었음이 확인된다. 『명수화보(名數畫譜)』(1810, 大原東野 編) 『한화지남이편(漢畫指南二編)』(1811, 河村文鳳 編), 『죽동화고(竹洞畫稿)』(1812, 中林竹洞 編) 등이 그것이다. 이 중 『명수화보』는 1810년에 간행된 일본화보로, 1885년 상해에서 『점석재총화』가 편찬되는데 영향을 끼친 화보이다³⁶⁾. 산수·인물·영모·화조·어해(魚蟹) 등 다양한 소재가 사실적으로 판각된 두 화보는 모두 고종연간 궁중에 소장되어 있었다. 이상으로 언급한 중국 및 일본화보는 현종의 소장품을 기록한 『승화루서목』에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19세기 후반 경으로 집중된 집경당 전적의 수집시기와 소장품의 추이를 대변해 준다.

19세기 전반에 수집된 승화루 소장품이 현종의 예술취향으로 인해 중국과 우리나라의 금석문, 명서화가의 글씨와 그림, 인보(印譜), 화보(畫譜) 등 시대를 불문한 다양한 감상용 자료를 포함하였던 반면, 위에서 살펴 본 집경당 소장품은 주로 백과사전식 저록류와 청대 서예자료, 중국 및 일본 화보가 주된 구성내용이었다. 이러한 집경당 소장품의 성격은 고종연간 황실의 서적 수입정책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집경당에 소장되었던 서화자료가 고종 대 황실의 예술취향을 대변해 준다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으로부터 당대 최신의 문화 조류를 수용하고자 한 황실의 의지를 파악하게 하는 간접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³⁷⁾.

VI. 19세기 집경당 소장 자료의 이동과 현전(現傳) 상황

집경당에 소장되었던 방대한 자료는 1891년 경 경복궁 후원에 위치한 집옥재로 대거 이동되었다. 그해 7월 13일 고종이 어진 봉안처였던 보현당(寶賢堂)을 고쳐 짓고 집옥재 공사를 중건소(重建所)로 하여금 거행할 것을 명한 후의 일이었다³⁸⁾. 집경당이 우선 집옥재에서 거리상 가깝고 중국에서 건너온 다량의 최신서적이 소장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고종이 구상했던 궁중 도서관의 성격과

36) 賴毓芝, 2003, 「1870年代上海的日本網絡與任伯年作品中的日本養分」 『美術史研究集刊』 第14期, 國立臺灣大學, pp. 159-242 참조.

37) 이러한 고종황실의 의지를 가능하게 한 것으로 전국의 주요 港灣이 개방되어 외래문화 수입이 활발했던 대한제국기의 무역상황을 꼽을 수 있다. 1876년 일본에 의해 부산항이 강제로 개방된 이래 군산·원산·인천·목포 등의 개항장을 통해 일본 문물이 다량으로 유입되었다. 경제사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개항장이 朝日貿易에 치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선경제에 미친 결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지만 문화사의 입장에서 보면, 집경당이나 집옥재에 최신 일본화와 일본서적이 소장될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역선을 통한 잦은 거래가 일조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한제국기 무역에 관해서는 孫禎準, 1982, 『韓國 開港期 都市變化過程研究』, 일지사; 이현장, 1985, 「한국 개항장의 상품유통과 시장권」 『經濟史學』 9호, 경제사학회, pp.119-294 참조.

38) 『高宗實錄』 卷28 28年(1891) 7月 乙亥(13日)條.

부합했던 것으로 추측된다³⁹⁾.

물론 집옥재를 구성했던 전적 중에는 창덕궁 승화루, 관물헌(觀物軒), 춘방 등 기타 전각에서 옮겨온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서화자료만큼은 집경당에서 옮겨온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아마도 19세기 전반까지 다량의 서화를 수집해 두었던 승화루 소장 서화가 고종연간에 일부가 곤녕합이나 집경당으로 옮겨진 듯하지만 다수의 서화작품은 이미 궐 밖으로 유출되었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된 것도 한 가지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당시 집옥재로 옮겨진 서화자료는 『포쇄서목』에 수록된 작품 중 고종재위 말년에 작성된 『집옥재서적목록(集玉齋書籍目錄)』에 동일한 제목과 수량으로 수록된 정황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⁴⁰⁾. 두 서목을 비교하여 이동된 전적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고종연간 집옥재로 이동된 집경당 구장(舊藏) 서화작품 및 관련저록

제 목	수량	현 규장각 소장 여부 (O/X)	이 동 경 로	제 목	수량	현 규장각 소장 여부 (O/X)	이 동 경 로
兩漢金石記	8卷	○	緝敬堂→集玉齋	集古公書式	2卷	○	同上
篆字彙	12卷	○	同上	畫淵圖說	1卷	×	同上
金石萃編	64卷	○	承華樓→緝敬堂→集玉齋	照象略法	1卷	○	同上
夢園書畫錄	16卷	○	緝敬堂→集玉齋	繪地法原	1卷	○	同上
北齋漫畫	15卷	×	同上	寰瀛畫報	1卷	×	同上
楷法溯源	14卷	○	同上	雲溪山館畫譜	2卷	○	同上
金石叢書	40卷	○	同上	三國志像	2卷	×	同上
漢魏叢書	80卷	○	同上	申江勝景圖	2卷	○	同上
隸辨	8卷	○	同上	論畫淺說	1卷	○	同上
隸釋	8卷	○	同上	廣陵名勝圖	1卷	○	同上
紅樓圖詠	2卷	×	同上, 『집경당 포쇄서목』에 는 紅樓夢圖詠으로 기재	三才圖會	79卷	×	同上
快雪堂法書	3卷	○	同上	補遂良聖教序	1帖	×	同上
歷代名將圖	2卷	○	同上	王右軍書帖	5卷	×	同上
紅荳樹館書畫記	6卷	○	同上	馮中丞墨蹟	1卷	○	同上
畫譜采新	4卷	○	同上	貞隱園法帖	5卷	×	同上
畫譜	2卷	○	同上	樂毅論	1卷	○	同上

39) 이에 관해서는 이태진, 2000, 「1880년대 고종의 개화를 위한 신도서 구입사업」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pp. 279-305 참조.

40) 『集玉齋書籍目錄』, 규장각 소장본(奎11676).

제 목	수량	현 규장각 소장 여부 (O/X)	이 동 경 로	제 목	수량	현 규장각 소장 여부 (O/X)	이 동 경 로
無雙譜	1卷	○	承華樓→緝敬堂→集玉齋 * 총4권에서3권이유실된 상태로 전해짐.	趙之謙	1卷	×	同上
杜氏徵古畫傳	3卷	×	緝敬堂→集玉齋	聖教序	1卷	×	同上
海上名家畫稿	2卷	○	同上	趙孟頫書	4卷	×	同上
耕織圖	2卷	○	同上	趙孟頫墨蹟	1帖	○	同上
御製耕織圖	1卷	○	同上	成親王書帖	6卷	×	同上
薛氏鐘鼎款識	4卷	○	同上	成親王書帖	1卷	○	同上
汗簡	1卷	×	同上	歷代名人畫譜	4卷	×	同上
鮑刻鐘鼎彝器款識	4卷	×	同上	墨香居畫識	24卷	○	同上
博古圖	12卷	×	同上	圓明園圖詠	2卷	×	同上
桐陰論畫	4卷	○	同上	鄧石如隸冊	1卷	×	同上
海上群芳譜	1卷	○	同上	歐陽詢書帖	1帖	×	同上
東坡書帖	1卷	×	同上	藏寶帖	1帖	○	承華樓→緝敬堂→集玉齋
玄對先生畫譜	6卷	○	同上	俞文清公手蹟	1帖	×	緝敬堂→集玉齋
毓秀堂畫傳	2卷	○	同上	蘇東坡書帖	3帖	×	同上
國朝畫識	8卷	○	同上	九成宮	1帖	○	同上
清河書畫舫	12卷	○	同上	晚香堂蘇帖	1帖	×	同上
金石綜例	1卷	○	同上	梅壽草堂晉唐小楷	1帖	×	同上
金石三例	8卷	○	同上	毅齋筆帖	1帖	○	同上
續刻金石三例	4卷	○	同上	孫過庭譜	1帖	○	同上
金石跋尾	2卷	×	同上	趙書洛神賦	1帖	○	同上
楚迹圖	1卷	×	同上	何紹基書帖	4帖	×	同上
歷代輿地沿革圖	1卷	○	同上	內榻挾雪堂	5帖	○	同上
京畿金石考	2卷	×	同上	初榻詒晉齋	8帖	×	同上
鴻雪因緣畫	3卷	○	同上	成親王巾箱帖	4帖	○	同上
十竹齋書畫譜	8卷	○	同上	完白山民墨寶	1帖	○	同上
東洋梅嶺畫譜	3卷	×	同上	原榻玉版十三行蘭亭	1帖	○	同上
竹洞畫稿	2卷	○	同上	着色沈心海士女(簇子)	2次	×	同上
漢畫指南	3卷	○	同上	俞太史百壽圖	1帖	×	同上

제 목	수량	현 규장각 소장 여부 (O/X)	이 동 경 로	제 목	수량	현 규장각 소장 여부 (O/X)	이 동 경 로
水滸圖	1卷	×	同上	鄧石如隸冊書柱聯	1次	×	同上
芥子園畫傳	4卷	×	同上	費曉樓着色四美圖(簇子)	2次	×	同上
晚笑堂畫	2卷	×	同上	梁文定公墨蹟	1次	×	同上
白描畫譜	1卷	×	同上	美人圖	2張	×	同上
海上靑樓圖	1卷	×	同上	東洋地球圖	1軸	×	同上
春景圖	1卷	×	同上	西洋地球圖	1軸	×	同上
凌烟閣圖	1卷	○	同上	南北極圖	2軸	×	同上
大字九成宮	1卷	×	同上	東西球圖	1軸	×	同上
楊泳春墨蹟	1卷	×	同上	蘇藩司全圖	1軸	×	同上
郭臨九成宮	1卷	○	同上	元章拜石圖	1軸	×	同上
黃臨九成宮	1卷	○	同上	純廟宸翰	1軸	×	同上
唐詩畫譜	4卷	○	同上	方琮山水真跡	1軸	×	同上

이상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승화루 소장품은 일부만 이동경로가 확인되는 반면 집경당에 소장되었던 전적은 적지 않은 수의 저록과 작품이 일치하는 사례가 발견된다. 후에 집옥재 소장품은 통감부가 설치한 제실도서관으로 흡수되었고 이 자료가 경성제국대학으로 인계되었기 때문에 상당수가 현재 서울대 규장각에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규장각에 소장된 자료는 서화 관계 저록과 제발집(題跋集), 서첩의 복각본, 화보 등이고 원본(原本; 肉筆本) 그림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마도 통감부에 의해 제실도서관이 설치될 때 누락되었거나 이왕이 박물관으로의 이동, 그리고 궁 밖으로 유출되었기 때문인 아닌가 한다. 이와 더불어 조선말기 궁중에 소장되었던 상당수의 중국 및 한국 서화는 여전히 오늘날 행방이 불확실하고 어떠한 경로로 인해 유실되었는지 알려주는 문헌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지속적인 탐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VII. 맺음말

지금까지 고종연간에 이루어진 궁중 서화수장의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경복궁 집경당이 서화수장처로서 차지한 위상과 수장품의 내용에 관해 살펴보았다. 집경당은 현종 대의 승화루와 더불어

19세기 궁중 서화수장의 규모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수장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는 결국 집경당의 건립연대와 운용방식, 실질적인 기능에 관해 혼동을 불러일으킨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집경당의 건립연대에 관해 경복궁 중건공사가 이루어진 1867년 이후로 막연하게 추정해 왔으나, 이 글에서는 1890년에 제출된 「함화당상량문」과 기타 관찬사료의 기록을 근거로 건립연대를 대략 1890년경으로 추정하였다. 아울러 이곳이 조정의 신료와 각국공사들을 접견한 장소였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고종의 강학 장소, 유생들의 시험장소, 그리고 궁중 도서관으로서 활용된 전각이었음을 새롭게 밝힐 수 있었다. 집경당이 내외신 접견처인 것처럼 와전된 것은 바로 옆에 연달아 세워진 함화당이 고종의 집무실이자 정치적인 용도로 자주 이용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집경당은 1891년 고종의 명에 의해 집옥재가 건립되어 자료가 이동되기 전까지 경복궁 침전영역에 속했던 전각 중 가장 많은 서책과 서화자료가 수장되었던 곳이다. 집경당의 존재는 19세기 전반까지 창덕궁에 밀집되었던 서화수장처가 경복궁 중건으로 인해 이 곳에 배치되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창덕궁의 승화루가 현종연간의 서화수장을 대표한 곳이었다면 경복궁의 집경당은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19세기 후반 황실의 서화수장 정책이 변모되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현존하는 『집경당포쇄서목』을 통해 볼 때, 고종황실이 추구했던 수장정책은 어느 선조대(先朝代)보다도 동시기 자료에 대한 '시대성'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조·청(朝·淸)간 서화교류가 활발했고 일본화 및 서양화풍이 유입된 조선말기 미술사의 흐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러나 국내로 유입된 외국의 최신 서책과 서화, 화보 등이 조선사회에서 충분히 융화되지 못하고 중국풍 일변도로 흐르게 된 결과가 초래된 것은 시대적인 한계를 가늠하게 한다.

끝으로 현재 진행 중인 발굴조사가 완료되어 집경당 주변의 유구(遺構)와 건축적인 구조가 밝혀지면 앞으로 궁중 도서관으로서 집경당에 대한 후속 연구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附表〉 19세기 후반 경복궁(景福宮) 집경당(緝敬堂) 소장(所藏) 서화저록(書畫著錄) 및 서화 목록(書畫目錄)

- * 본 표는 19세기 후반 고종연간에 건립된 경복궁 집경당에 소장되었던 서화저록과 서화작품을 대표화한 것이다.
- * 본 표는 『집경당포쇄서목(緝敬堂曝曬書目)』(규장각 소장본)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 * 작품명 중 “又”로 표기된 것은 원본상의 표기로, 동일 작가 또는 동일 제목을 의미한다.

1. 서화관계 저록

번호	작품명	수량	번호	작품명	수량
1	欽定西清古鑑	24本(1通)	19	又(阮氏)	4本
2	金石叢書	40本	20	又(鮑氏)	4本(1匣)
3	又	20本	21	鐘鼎字原	2本
4	金石萃編	64本	22	博古圖	12本(2匣)
5	金石索	20本	23	篆字彙	12本
6	金石三例	8本	24	篆文六經四書	10本(1匣)
7	續金石三例	4本	25	隸辨	8本
8	兩漢金石記	8本	26	又	8本
9	又	6本	27	隸釋	8本
10	金石文字	5本	28	隸法彙纂	4本
11	蓬萊閣金石文字	5本	29	隸孝經	1本
12	筠清金石	5本	30	草字彙	6本
13	金石補錄	6本	31	又	4本
14	金石跋尾	2本	32	楷法溯源	14本
15	京畿金石攷	2本	33	格言楷則	1本
16	金石綜例	1本	34	館閣習楷	本
17	鐘鼎款識(薛氏)	4本(1匣)	35	玉堂楷則	1本
18	翰苑楷則	1本	36	翰苑則錦	1本

2. 書畫

번호	작품명	수량	번호	작품명	수량
1	百體千字文	1本	6	又(黃臨)	1帖
2	又	1本	7	又(郭臨)	1帖
3	汗簡	2本(2匣)	8	又	1帖
4	又	1本	9	又	1帖
5	九成宮(黃臨)	1帖	10	皇甫碑	1帖

번호	작품명	수량	번호	작품명	수량
11	又	1帖	44	王維遺事	1帖
12	洛神賦	1帖	45	玉華銘	1帖
13	趙子昂	1帖	46	又	1帖
14	趙之謙	1帖	47	快雪堂書帖	5本(1匣2本欠)
15	趙之謙琴旨	1帖	48	玉板十三行蘭亭記	1帖
16	顏真卿	1帖	49	正氣歌	1帖
17	爭座位	1帖	50	談禪合詠	1帖
18	成道記	1帖	51	漢魏六朝墓銘	1本
19	董蘭亭	1帖(欠)	52	劉文清	1帖
20	董成樂軒	1張	53	貞隱園法帖	1帖
21	董文敏	1帖(欠)	54	一品夫人墓銘	1帖
22	董靈飛經	1部	55	梅野人書	1帖
23	玄秘塔	1帖	56	御製官箴	1帖
24	多寶塔	1帖	57	完白山民墨蹟	1帖
25	塙塔銘	1帖	58	梁文定公墨蹟	1張
26	又	1張	59	楊詠春墨蹟	1本
27	表忠觀碑	1帖	60	吳瀟甫篆文	1本
28	龍興寺	1帖	61	李綱	1本
29	西嶽華山碑	1本	62	徐昌緒	1張
30	曾文正公神道碑	1本	63	汪士宏幽風詩	1張
31	又	1本	64	魯瞻公冊頁	1張
32	陶墓誌表	1本	65	十五完人書	1張
33	戴府君墓誌	1張	66	孫子授八言	2張
34	米南宮	1帖	67	林則徐八言	2張
35	成親王	1帖	68	杜鳳岐家訓	1張
36	張玉德	1帖	69	管夫人金剛	1張
37	貽晉齋巾箱帖	4帖(1匣)	70	廖綸字屏	四張
38	官靜夫	1帖	71	郭石如冊頁	1張
39	周樞圭	1帖	72	寰宇詠碑錄	6本
40	彭孔嘉	1帖	73	又	6本
41	汪巢林	1帖	74	十三經摹本	8本
42	孫過庭	1帖	75	書苑菁華	2本
43	馮中丞	1帖	76	廣川書跋	2本

번호	작품명	수량	번호	작품명	수량
77	幽寗雪鴻	1本	110	詩中畵	2本(1匣)
78	畵史彙編	24本	111	毛氏行書	4張(欠)
79	十竹齋	8本	112	董其昌不自棄文	1張(欠)
80	又	8本	113	文徵明前赤壁賦	1張(欠)
81	芥子園(初集)	4本(1匣)	114	湯熏伯	2張(欠)
82	又(二集)	4本(1匣)	115	泛槎圖	4本(1匣)
83	又(三集)	4本	116	沈拱之篆書柱聯	4軸內1軸欠
84	又	8本	117	彭云章篆書柱聯	1對
85	又(周臨)	4本	118	莫友芝篆書柱聯	1對
86	揮毫自在	4本(欠)	119	吳大澂篆書柱聯	6軸內5軸欠
87	梅嶺畵譜	3本	120	何紹基隸書柱聯	1對
88	玄對先生畵譜	6本(1匣)	121	鄧石如隸書柱聯	2對欠
89	毓秀堂畵傳	4本(1匣)	122	俞太史八言隸書柱聯	4軸
90	唐詩畵譜	4本	123	陸芝祥隸書柱聯	1對(欠)
91	畵譜采新	2本(1匣)	124	黃愛廬隸書柱聯	1對
92	又	2本(1匣)	125	吳唐林隸書柱聯	1對(欠)
93	暢懷畵譜	1本(欠)	126	朱珉隸書柱聯	1對內1軸(欠)
94	又	1本(欠)	127	過庭閒楷書柱聯	1對(欠)
95	海上名家畵稿	2本(1匣)	128	莫友芝楷書柱聯	三對
96	雲溪上館畵稿	2本	129	劉石菴行書柱聯	1對(欠)
97	竹桐畵稿	2本	130	倪元璐行書柱聯	1對
98	名數畵譜	4本(1匣)	131	潘祖蔭行書柱聯	1對
99	白描畵譜	1本	132	鮑逸卿行書柱聯	1對(欠)
100	桐陰論畵	4本(1匣)	133	勒方琦行書柱聯	1對(欠)
101	又	4本	134	王仁堪行書柱聯	1對
102	又	4本	135	梁山舟行書柱聯	1對(欠)
103	集古名公畵式	2本	136	祁世長行書柱聯	1對(欠)
104	又	2本	137	吳菊潭行書柱聯	2對
105	冶梅畵譜	1本	138	毛昶熙行書柱聯	1對
106	冶梅石譜	2本(1匣)	139	莫友芝行書江 府學記 柱聯(*결락)	2對
107	冶梅竹譜	2本	140	方孝儒行書柱聯	4軸
108	晚笑堂畵	2本	141	王仲山行書柱聯	4軸
109	紉齋畵撥	2本(1匣)	142	沈桂芬行書柱聯	1對(欠)

번호	작품명	수량	번호	작품명	수량
143	俞隸書橫披	1軸	176	名媛圖說	2本
144	張綠初行書柱聯	1對(欠)	177	碧血錄	5本
145	散仙人物圖	4軸內2軸欠	178	海上青樓圖	1本
146	王芸階士女圖	4軸	179	紅樓夢圖詠	2本(1匣)
147	元章拜石圖	1軸	180	三國全像	2本
148	撫松中堂圖	1軸	181	水滸圖贊	1本
149	倚鳳雪圖	1軸	182	又	1本
150	着色蕉葉題詩圖	1軸	183	淞濱花影	2本(1匣)
151	漢畫指南	3本	184	鏡影笛聲	1本
152	夢園書畫錄	16本	185	春巖圖	1本
153	賞奇軒合編	5本	186	申江勝景圖	2本
154	佩文書畫譜	16本(2匣)	187	廣陵名勝圖	1本
155	又	16本(2匣)	188	耕織圖	2本(1匣)
156	點石齋叢畫	8本(1匣)	189	又	2本(1匣)
157	梅花草堂小楷	1本	190	又	2本(1匣)
158	唵香閣叢畫	6本(2匣)	191	又	2匣(1匣)欠
159	紅荳樹館書畫記	6本(1匣)	192	萃新畫譜	1本
160	清河書畫舫	12本	193	鴻雪因緣畫	3本
161	又	6本(1匣)	194	夢迹圖	1本
162	詩畫舫	6本(1匣)	195	無雙譜	1本
163	園明園圖詠	2本	196	帝鑑圖說	4本
164	凌烟閣圖	1本	197	繪事津梁	2本(1匣)
165	北齋漫畫	15本	198	杜氏徵古畫傳	3本(1匣)
166	茜窓水品	2本(1匣)	199	題畫詩	4本 欠
167	畫譜滄江虹月	2本(1匣)	200	又	5本
168	高士先賢傳	4本	201	又	5本(1匣內1本)欠
169	聖諭像解	4本(1匣)	202	又	5本(1匣)欠
170	劍俠傳	2本	203	百鳥圖	3本(1匣)
171	仇十洲列女傳	2本(欠)	204	論畫淺說	1本
172	歷代名公眞蹟	4本(1匣)	205	墨場必携	4本(1匣)欠
173	歷代名人畫譜	4本	206	任四種	4本
174	歷代名將圖	2本	207	集古堂印譜	8本
175	百孝圖	2本	208	聚石印譜	4本

번호	작품명	수량	번호	작품명	수량
209	觀月聽琴印譜	8本	218	唐晉和合圖	1張
210	益知圖	2本(1匣)	219	俞太史百壽圖	1張
211	又	2本(1匣)	220	又	1張
212	九歌圖	1帖	221	三陽開泰圖	1張(欠)
213	着色洋橋人物	4張欠	222	送子圖	1張(欠)
214	王蘭亭人物	4張	223	任繪	1張
215	費曉樓着色四美圖	2張	224	七功圖	1張
216	着色沈心海士女圖	2張	225	徐雪邨像	1張
217	許檀生着色琴條	2張	* 총 261건 941점		

참고문헌

1. 원전사료 및 영인본

- 『宮闕志』(高宗代), 장서각 소장본(K2-4360)
宮內府大臣 官方調査科 編, 1910, 『宮內府例規』, 宮內府
金永壽, 2004, 「荷亭集」 『韓國文集叢刊』, 322, 민족문화추진회
『北闕圖形』, 2006, 국립문화재연구소 영인본
『緝敬堂曝曬書目』, 규장각 소장본(奎 11704)
『緝敬堂曝曬書目剩欠總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古0262-1)
『集玉齋書籍目錄』, 규장각 소장본(奎11676)
朝鮮總督府 取調局 編, 1911, 『奎章閣圖書關係書類綴』, 규장각 소장본(奎26764)
朝鮮總督府 編, 1932, 『朝鮮古蹟圖譜(宮室篇)』 10冊, 朝鮮總督府

2. 논저·도록

- 문화재청, 2006, 『궁중 현판의 이해』
南權熙, 1987, 「承華樓書目考」 『社會科學研究』 3號, 慶北大 社會科學研究所
박정혜·이예성·양보경 공저, 2005, 『조선왕실의 행사그림과 옛지도』, 민속원
안휘준 외, 2005, 『동궐도읽기』,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
이강근, 1998, 『경복궁』, 대원사
이태진, 1990, 『奎章閣小史』, 서울대도서관
_____, 2000,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국립춘천박물관, 2004, 『조선시대 궁중장식화 특별전-태평성대를 꿈꾸며』
千惠鳳, 1973, 「奉謨堂考」 『國會圖書館報』 제10권 2호
_____, 외, 1996, 「藏書閣의 歷史와 資料的 特徵」,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홍대영 편, 2001, 『한국의 건축문화재(서울편)』, 기문당
황정연, 2004, 「19세기 宮中 書畫收藏의 형성과 전개」 『美術資料』 70·71, 국립중앙박물관
_____, 2005, 「조선시대 궁중 서화수장과 미술후원」, 李成美 외, 『조선왕실의 미술문화』, 대원사

국립광주박물관, 1995, 『韓國近代繪畵名品展』,

賴毓芝, 2003, 「1870年代上海의 日本 網絡與任伯年作品中的 日本 養分」 『美術史研究集刊』 第14期,

國立臺灣大學

The Collection of Paintings and Calligraphy at Jipgyeong-dang Hall during King Gojong's Reign (1897~1907)

Hwang Jung-yo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oyal collection of paintings and calligraphy during King Gojong's (高宗) reign (1897~1907) based on the function of the Jipgyeong-dang Hall (緝敬堂), situated at "sleeping realm (寢殿)," Gyeongbok Palace. Using the surviving palace records and art works this study argues that the date of building the hall is approximately confined to the year of 1890. Not being matched with the general opinion that the Jipgyeong-dang Hall was used for the official meeting with envoys, this hall functioned as the main place for royal audience and the storehouse for archives.

The role of Gojong as collector and patron was essential not only to the maintenance of the collection but also to the strengthening of royal authority just before the Japanese annexation in 1910. The specific titles of the collection at this hall can be verified through the *Catalogue of the Books, Paintings, and Calligraphy Exposed to the Sun at Jipgyeong-dang Hall* (緝敬堂曝曬書目) dating to the nineteenth century. The records of the catalogue inform us that more than 1,000 paintings and pieces of calligraphy, ink rubbings from old steles, manuals for painting, and encyclopedia concerning art theories from Korea, China, and Japan were preserved there. The collection of Jipgyeong-dang Hall resulted from Gojong's policy to foster the collection of contemporary Chinese and Japanese art works and various catalogues.

Standing behind the Gyeongbok Palace, the Jibok-jae Hall (集玉齋) also preserved the diverse sources of practical learning, as did the Jipgyeong-dang Hall for Gojong.

The enormous royal collections by Gojong might have been constructed in accordance with the royal artistic taste and the artistic milieu of the late Joseon period. The surviving royal catalogues confirm this assumption as documentary evidence.

Keywords : royal collection of paintings and calligraphy, royal archive system, King Gojong, Gyeongbok Palace, Jipgyeong-dang Hall, Jibok-jae Hall